

모성 상실을 경험한 여성의 조형양상

- 무라카미 하루키의 「타일랜드」와
「드라이브·마이·카」를 중심으로 -

박 유 미*

(e-mail : sabinaz@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남녀의 틀에서 벗어난 경계적 인물 |
| 2. 모성을 박탈당한 여성 | 5. 나가며 |
| 3. 모성을 포기한 여성 | |

키워드 :村上春樹(Haruki Murakami), 「타일랜드」(「Thailand」), 「드라이브·마이·카」(「Drive My Car」), 『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All God's Children Can Dance), 『女のいない男たち』(Men Without Women), 母性(motherhood), フェミニティー(femininity)

1. 들어가며

「타일랜드(タイランド)」(초출 『신초(新潮)』, 1999.11)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이하 하루키로 표기) 최초의 연작단편집인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 [신초샤(新潮社), 2000] 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이다. 이 단편집의 작품들은 단편집 간행 시 추가된 「벌꿀파이(蜂蜜パイ)」를 제외하고는 「지진 이후에(地震のあとで)」라는 제목 아래 「일(その一)」부터 「오(その五)」라는 이름으로 『신초』에 연재되었으며, 모두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1월 17일. 일반적으로 고베(神戸)지진으로 약칭되기에 이하 고베지진으로 표기)이라는 공통된 테마를 다루고 있다¹⁾.

* 충남대학교 강사, 근현대일본문학 전공.

1) 단편집 출간 시에는 각각 「UFO가 구시로에 내려오다(UFOが釧路に降りる)」 「다리미가 있는 풍경(アイロンのある風景)」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 「타일랜드(タイランド)」

한편 「드라이브·마이·카(ドライブ・マイ・カー)」(초출 『분계춘주(文芸春秋)』 2013.12)는 『여자 없는 남자들(女のいない男たち)』(분계춘주(文芸春秋), 2014)²⁾이라는 단편집의 모두를 장식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런데 작가 자신이 단편집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수록된 여섯 편의 공통된 모티브는 “여러 사정으로 여성이 떠나버린, 혹은 곧 그렇게 될 것 같은 남자들”³⁾의 이야기라는 데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지진 이후’와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동일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집필된 연작단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편집이 지닌 이러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다⁴⁾. 특히 『여자 없는 남자들』은 제목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여기에 「벌꿀파이(蜂蜜パイ)」가 추가되어 여섯 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하루키가 작가로서 큰 전환기를 맞이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하루키는 데뷔 이래 사회문제에 대해 회피적인 ‘디테치먼트’적인 경향을 견지하면서 일본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작가였으나 1995년에 일어난 고베지진(1월17일)과 움진리교의 지하철 사린 가스 살포사건(3월20일)을 계기로 사회와 소통하는 ‘커미트먼트’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루키의 이러한 변화는 사린 사건의 피해자를 인터뷰한 『언더그라운드(アンダーグラウンド)』[고단샤(講談社), 1997]와 사건의 피의자인 움진리교 신자를 인터뷰한 『약속된 장소에서(約束された場所—underground 2)』[분계춘주(文芸春秋), 1999]라는 논픽션으로 이어졌으며 고베지진에 대해서는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라는 소설의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 (박유미(2015)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UFO가 구시로에 내려오다(UFOが釧路に降りる)」론」 『日語日文學』 68, 大韓日語日文學會, p.242 참고)

2) 2013년 말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 발표한 다섯 편의 단편, 「드라이브·마이·카(ドライブ・マイ・カー)」 「에스터데이(イェスタデイ)」 「독립기관(獨立器官)」 「셰에라자드(シェエラザード)」 「기노(木野)」와 단행본 출간에 맞춰 새로 쓴 표제작 「여자 없는 남자들(女のいない男たち)」의 여섯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3) 村上春樹(2014) 「まえがき」 『女のいない男たち』 文藝春秋, p.7.

4) 「타일랜드」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단편집 전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한데, 먼저 ‘지진’이라는 모티브와 관련하여 실제로 일어난 천재지변을 인간 내면의 메타포로 환원해 버린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의 논문으로는 福田和也(2000) 「「正しい」という事、あるいは神の子どもたちは「新しい結末」を喜ぶことができるのか? —村上春樹『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論」(『文学界』, 文藝春秋), 中元さおり(2013) 「村上春樹「かえるくん、東京を救う」における〈コミットメント〉の行方—「雪かき仕事」と「ハントタッチ」—」(『広島経済大学研究論集』 35(4), 広島経済大学経済学会)를 들 수 있다.

또한 고베지진과 지하철사린사건을 관련짓는 요소로 ‘폭력성’과 ‘지하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 葉菱(2014) 「村上春樹『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論: 「暴力性」と「地下性」について」 『熊本大学社会文化研究』 12, 熊本大学]는 하루키의 작품에서 자주 언급되어 온 ‘어둠’이나 ‘폭력’이라는 모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타일랜드」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인 久保田裕子(2012) 「言葉は〈出来事〉を越えることができるか: 村上春樹「タイランド」論」(『日本文学』 61(8), 日本文学協会)에서는, 비리얼리티적 요소가 많은 이 작품이 수업교재로 적합한지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佐野正俊(2001) 「タイランド」(村上春樹研究会篇『村上春樹作品研究事典』)는 방콕이라는 도시와 이곳 사람들의 특징을 관련지어 주인공이

이 시사하듯이 버림받거나 배신당한 ‘남자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어디까지나 남성들의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성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석될 정도로 작품 속 여성들은 모두 남편이나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으나 이들 여성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설명이 없기에 마치 이러한 행동이 여성의 본능처럼 그려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그리고 이들 여성에 대한 평가와 해석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진이나 여성에게 배신당한 남성이라는 단편집의 동일한 모티브와 남성 주인공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임에도 두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루키 소설로서는 드물게 아이를 잃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인공의 조연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사회적 젠더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인물이 어떻게 조형되어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모성과 여성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루키의 인물조형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면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음을 치유해 가는 과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드라이브·마이·카」에 대한 연구 역시 단편집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14년 『文学界』 68(6)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리는 여자와 남자(村上春樹が描く女と男: 『女のいない男たち』)’라는 테마로 특집이 구성되어 작품 속 남녀관계가 논해지고 있다.

清水良典 「その奥に秘められし力を見出すべし」는 하루키의 소설세계에서 섹스는 사랑의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존재를 위협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斎藤 環 「性愛の内と外」는 성애의 횡수와 대상의 많고 적음의 외연성과 특징인에 대한 고착과 집착을 나타내는 내연성의 어긋남, 즉 ‘성애의 부조리’를 바탕으로 남녀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都甲幸治 「妻の裏切」⁶⁾는 지금까지의 많은 하루키의 작품이 어찌서 여성은 배신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왔다고 전제하며 이 단편집 역시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北村隆志(2014) 「話題作を読む 村上春樹『女のいない男たち』と夏目漱石」(『民主文学』(589), 日本民主主義文学会)는, 남녀의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근대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던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과의 유사점을 비교하며 단편집의 남녀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5) 「독립기관」이라는 작품에서는 “모든 여성에게는 거짓말하기 위한 특별한 독립기관과 같은 것이 천성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하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 대부분의 여성은 안색 하나 목소리 하나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에게 있는 독립기관이 제멋대로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2. 모성을 박탈당한 여성

「타일랜드」는 갑상선 전문병리의 사쓰키(さつき)와 그녀가 방콕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가이드 겸 운전을 맡은 니밋(ニミッ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니밋은 단순히 여행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사쓰키가 오랜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갑상선회의’에 참석하는 사쓰키의 여정을 따라 방콕으로 갈 때와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마치 두 모습을 비교하듯이 사뭇 다른 광경이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쓰키가 방콕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처음과는 뭔가 달라진 내면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따라서 사쓰키가 내면에 품고 있던 상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작품 이해에 있어 중요하다 하겠다.

소설은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의 광경을 묘사하며 시작된다. “냉방기의 바람을 피해 어깨부터 모포를 걸치고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사쓰키는 갱년기 증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온 몸에 땀을 흘리며 전신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갱년기라는 문제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수명을 늘려온 인류에 대한 신으로부터의 짓궂은 경고(혹은 괴롭힘)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쓰키는 새삼 생각했다. 불과 백여 년 전만해도 인간의 평균수명은 오십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생리가 끝난 뒤에도 20년이나 30년을 사는 여성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난소나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게 된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일의 성가심이나 폐경 후의 에스트로겐의 감소와 알츠하이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등 (후략) (99)⁶⁾

갑상선전문이라는 사쓰키의 직업과 노화에 따른 갑상선의 기능이상으로 괴

6) 「타일랜드」의 원문인용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2003) 『村上春樹全作品1999~2000』 3, 講談社>를 텍스트로 사용하였으며 인용문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함. () 안의 숫자는 텍스트의 쪽수를 나타냄

로워하는 사쓰키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고통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녀가 표층 레벨에서 의식하는 갑상선문제의 심층에 노화와 죽음이라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⁷⁾는 기술처럼 성이나 생식에 관련된 호르몬의 감소를 그녀는 노화와 죽음의 문제로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갱년기에 접어들어 사쓰키가 이처럼 여성성이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등을 고민하며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녀에게 갱년기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상실감이나 상처, 콤플렉스를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갱년기를 콤플렉스로 여기며 이를 거부하듯 ‘여성성’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물론 젊었을 때와는 달라 몸이 샤프하게 훌쩍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특별히 광고모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나이보다 다섯 살 이상은 젊게 보이니까 그것으로 썩 괜찮은 게 아닐까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112)

사쓰키는 젊어서부터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뿐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되도록 젊어보이도록 애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다른 각도로 보자면 그녀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것, 특히 여성성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일면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사쓰키는 여성호르몬의 감소를 자신의 여성성의 결여로까지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그만큼 여성성이라는 가치에 구속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사쓰키가 자신의 여성적인 외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성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여란 바로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점인데, 이미 갱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사쓰키의 이러한 상실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나 여성호르몬의 감소 등의 생리현상을 여성성과 관련짓는 사쓰키의 사고에는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사쓰키가 왜 그렇게까지 아이의 문제를, 여성성 나아가 자신의 삶의 문제로까지 여기

7) 久保田裕子(2012) 「言葉は<出来事>を越えることができるか—村上春樹「タイランド」論—」 『日本文学』 61(8), 日本文学協会, p.26.

며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규명해내려는 데 있다. 그 이유야말로 사쓰키 내면의 상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사쓰키는 3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이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그녀 몸속에 들어있는 ‘돌’로 표현될 정도로 내면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은 분명 오랜 동안 그것을 품은 채 살아왔으며 그 돌을 어딘가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충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음에도 30년 전의 과거에 얽매어 이로 인한 증오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 남자가 고베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 남자의 종적을 놓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진 직후에 사쓰키는 그의 집에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물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집이 납작하게 찌부러져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온 식구가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나앉으면 좋았으련만.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 한 일을 생각하면, 태어났을 내 아이들에 대해 한 일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대가는 당연한 게 아닌가. (110)

‘그 남자’가 누구인지⁸⁾,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기술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추정하자면 고베에 살고 있는 ‘남자’로 인해 사쓰키는 30년 전에 임신했으나 강제로 낙태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적(또는 정신적)으로 불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에서 “태어났을 내 아이들”이라고 복수화한 것은 낙태를 해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이후로 그녀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즉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녀가 낳을 수 있었을 아이들을 의미한다.

8)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에 수록된 작품들에 대해 등장인물의 부모와의 관계, 특히 부친과의 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주체의 계보의 등장이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가토는 『타일랜드』의 주인공 사쓰키가 증오하는 ‘고베의 남성’ 역시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해석한다. 사쓰키는 고교 1학년 때 부친을 여의었는데 이후 모친이 다른 남성과 사귀거나 재혼하여 사쓰키에게는 계부 혹은 계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 남성이 사쓰키를 능욕하고, 임신하자 아이를 중절시켰을 것으로 추론하면서 그를 증오하는 사쓰키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加藤典洋(2009) 『地震と父なるものの影—『神の子もたちはみな踊る』』 『村上春樹 イエローページ 3』, 幻冬舎, pp.235-239 참고)

뿐만 아니라 사쓰키가 지닌 이 내면의 상처는 미국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혼 시 남편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던 데 있다”고 그녀를 비난하며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던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의 마음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남편의 비난이 사쓰키의 상처와 결여감을 더욱 자극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남편이 그녀에 대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태어났을 아이들”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쓰키와는 모순된 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쓰키가 무의식적으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앞에서 ‘정신적으로 불임’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아이를 말살하고 깊은 우물에 던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씻을 수 없는 죄로 인식하는 그녀이기에 이 일이 내면적 트라우마가 되어 신체적으로는 불임이 아니라 해도 무의식적으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쓰키는 과거에 얼마인 채 자신에게서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빼앗아간 남자에 대한 증오를 30년 동안이나 버리지 못하고 키워왔다. 그가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 죽길 원하는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길 바라기까지 했으며, 그래서 2월에 일어난 고베지진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진을 일으킨 것은 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고독한 삶이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아이와 가족, 그리고 행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사쓰키는 모성을 박탈당한 여성으로서 과거의 사건을 마음의 증오와 상처로 만들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3. 모성을 포기한 여성

「드라이브·마이·카」는 50대 후반의 성격파 배우 가후쿠(家福)와 그의 전속 운전사인 24살의 여성, 와타리 미사키(渡利 미さき)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앞서의 「타일랜드」에서의 사쓰키와 니밧의 관계와 중첩된다. 이 작품에서도 와타리 미사키는 단순히 운전사에 그치지 않고 가

후쿠가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후쿠는 10년 전에 여배우였던 아내를 자궁암으로 잃고 가까운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 왔으며 녹내장까지 앓아 직접 운전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생전에 다른 남성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며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마음의 상처를 키워 아직도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어쩌서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자야만 했는지, 가후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결혼한 이래 부부로서 또 생활의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중략)

자신들은 정신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잘 맞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주위 사람들도 그들을 사이좋은 이상적 커플로 여기고 있었다. (31)⁹⁾

가후쿠는 결혼생활 내내 아내 이외의 여성에게 한눈을 팔지도 않았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에게 끌리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처럼 남편이나 남성은 완벽한 관계로 여겼으나 아내나 애인이 갑자기 헤어질 것을 요구하거나 사라지는 이야기는 하루키의 소설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유형이다. 아키에다 미호(秋枝美保)는 “아내의 돌연한 가출로 시작되는 이야기패턴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상투적인 스타일”¹⁰⁾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이다.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의 모두를 장식하는 「UFO가 구시로에 내려오다(UFOが釧路に降りる)」에서도 남편인 고무라(小村)는 자신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며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여겼으나 아내는 돌연 집을 나가더니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 아내는 고무라가 자기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기덩어리와 같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메모를 남기고 있다. 결국 아내의 가출과 이혼요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의 생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던 고무라와는

9) 「드라이브·마이·카」의 원문인용은 <村上春樹>(2014) 『女のいない男たち』 文芸春秋.>를 텍스트로 사용함.

10) 秋枝(青木)美保(2001) 「村上春樹 「UFOが釧路に降りる」論 — 「圧倒的な暴力の瀬尾際」に立って—」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culture』 4, 比治山大学日本語文化学会, p.10.

달리 아내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

「드라이브·마이·카」에서도 가후쿠 부부의 결혼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가후쿠의 관점에서만 진술되고 있기에 아내의 입장이나 생각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기에 고무라가 아내의 이혼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가후쿠에게도 아내의 불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드라이브·마이·카」뿐 아니라 『여자 없는 남자들』은 여성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석될 정도로 작품 속 여성들은 모두 남편이나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

「에스터데이(イスタデイ)」에서는 오랜 친구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남성과 사귀고, 「독립기관(獨立器官)」에서는 남편 몰래 애인을 두고 있던 여성이 결국 두 사람을 모두 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사랑의 도피를 하며, 「기노(木野)」에서는 남편의 동료와 바람을 피워 이혼한다. 그러나 모든 작품이 남성의 시점에서 이야기되고 있어 여성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남편이나 애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갖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마치 여성의 본능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 여성에 대한 평가와 해석 역시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타무라 다카시(北村隆志)는 일본의 근대를 대표하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대부분의 소설은 남녀의 삼각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자 없는 남자들』이야말로 “소세키의 ‘남자와 여자의 드라마’의 유전자를 계승한 현대의 직계 자손”¹²⁾이라고 평한다. 특히 소세키의 『산시로(三四郎)』에서 산시로와 노노미야(野々宮) 사이를 오가며 마음이 있는 듯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전혀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리는 미네코(美禰子)와 비교하며 『여자 없는 남자들』의 “여성들은 모두 현대판 미네코”라고 기술하고 있다.

도코 고지(都甲幸治)는 “아내는 왜 배신하는 것인가, 『여자 없는 남자들』은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쓰였다”며 “지금까지의 무라카미 작품에 있어서도

11) 고무라와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유미(2015)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UFO가 구시로에 내려오다(UFOが鉤路に降りる)」론」 『日語日文學』 68, 大韓日語日文學會, p.245.> 참고.

12) 北村隆志(2014) 「話題作を読む 村上春樹『女のいない男たち』と夏目漱石」 『民主文學』 (589), 日本民主主義文學會, p.123.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¹³⁾. 이와 더불어 “무라카미의 작품이 성차별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며 남자는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갖는다 해도 질책을 받는 일은 없으나 여성들에게는 가혹해 그런 여성들은 당연한 결과처럼 자살하거나 살해당하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후쿠의 아내가 하필 부인과 질환인 자궁암으로 고통을 받다 죽게 된 것 역시 “다른 무라카미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가후쿠의 아내는 텍스트 상에서는 이미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⁴⁾.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던 것은 아니며, 작품에는 분명 그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선천적인 심장이상으로 삼 일만에 죽은 딸이 있었는데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 딸이 죽은 이후라는 사실을 가후쿠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그렇게 잃고 두 사람은 물론 큰 상처를 입었다. 거기에 생긴 공백은 무겁고 어두웠다. 마음을 다잡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집에 처박혀 많은 시간을 거의 말없이 보냈다. (중략) 그녀는 와인을 자주 마시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서도에 빠져 지냈다. (34)

가후쿠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었기에 조금씩 아이를 잃은 아픔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나, 실제 두 사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위의 장면은 이와는 다른 사실을 말해준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거의 말없이” 지냈으며 아내는 술에 의지하고 가후쿠는 서도에 빠져 각자의 시간을 보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후쿠는 두 사람이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말하나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배우로서 “이전보다 더 한층 각자의 일에 집중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아내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아이는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후쿠에게 전한다. 그런데 가후쿠는 아내가 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아내의 의견에 동의해 버린다.

13) 都甲幸治(2014) 「妻の裏切」(特集 村上春樹が描く女と男 : 『女のいない男たち』を読む) 『文学界』 68(6), 文藝春秋, p.239.

14) 위의 논문 13), 都甲幸治(2014) p.240.

떠올려 보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게 된 것은 그 후부터였다. 혹은 아이를 잃은 것이 그녀 속에 그러한 욕구를 자각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34)

위에서 가후쿠는 자신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 딸이 삼 일만에 죽게 된 일이야말로 가후쿠의 아내가 변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딸의 죽음은 자식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는 다른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는 일이다. “더 이상 아이는 만들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그녀의 이러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말해주는 듯 하겠다.

이처럼 가후쿠와는 달리 아내가 아이를 포기할 정도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녀가 모성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모성이 여성적 본능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미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내부에 그리고 사회·문화 속에 스며들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모성”¹⁵⁾에서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 완벽한 어머니에 대한 환상과 이상화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자식의 잘못된 행동이나 사고, 죽음 등을 본인의 책임처럼 느끼는 것은 이에 의한 바 크다.

가후쿠가 “나는 그녀 안에 있는 뭔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는지 몰라. 아니 눈으로 보기는 했어도 실제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라며 자신이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듯이, 그는 아내의 이러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읽지 못한 채 두 사람 모두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해버렸다. 치유되지 못한 아내의 상처는 결국 아이 갖기를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즉, 아이의 죽음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게 된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녀로서는 해결방법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모성’을 포기하는 대신 ‘여성’으로서의 삶에 집착하며 모성이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려 했음을 의미한다.

“왜 그런 하찮은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안겨야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15) 박유미(2009) 『「세이토(靑鞜)」의 여성담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44-45.

는 가후쿠에게, 미사키는 부인은 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잘 수 있었다고 말해주는데, 미사키의 이 설명은 아내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가후쿠는 “아내가 어째서 그 사람과 섹스를 했는지, 어째서 그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고민하나, 아내로서는 그 남자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남편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괜찮았던 것이다. 즉, 미사키의 이야기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가후쿠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내의 행동은, 그녀가 아이를 잃고 나서 갖게 된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의한 바 크다. 사랑하는 남편인 가후쿠와의 관계는 그녀를 ‘엄마’로 만드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는 ‘엄마’가 되길 거부하는 데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아이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즉, 딸의 죽음으로 인해 모성을 포기한 아내에게 있어 남편과의 관계는 그녀가 원지 않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반면 사랑이 없는 다른 남성과의 단순한 육체적 관계라면 이런 부담과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모성이라는 부담 없이 여성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가족이나 부부라는 굴레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그녀가 자궁암에 걸리게 된 것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성과 관계한 것에 대한 벌이라기보다는 아이를 낳기를 거부한, 즉 낳는 모성을 거부한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도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 해석하든 하루키의 여성 캐릭터 형상화에 있어 비판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4. 남녀의 틀에서 벗어난 경계적 인물

사쓰키와 가후쿠가 자신들의 상처를 돌아보게 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니릿과 미사키는 운전사라는 공통점 외에 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사점을 보이는데,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인물 조형에 있어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타일랜드」의 니밋은 독신 남성으로 노르웨이인 주인이 죽기까지 33년간 그의 운전사로 살아온 인물이다. 3년 전 주인이 죽으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재즈음악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그에게 남겼는데, 자동차와 재즈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상징과 같다. 니밋은 이제 주인 대신에 외국인 관광객을 벤츠에 태우고는 예전에 주인과 함께 들었던 재즈를 듣는다.

닥터, 전 독신입니다. 결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33년간 저는 소위 그분의 그림자처럼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 분이 가는 모든 장소에 동행했으며 그 분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마치 그분의 한 부분처럼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조차도 점점 알지 못하게 됩니다. (115)

위의 인용문은 “당신은 분명 그 사람에게 신뢰받고 있었네요”라고 하며 죽은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깊었을 것이라는 사쓰키의 이야기에 대해 잠시 주저하던 니밋의 대답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쓰키는 “그와 주인은 호모섹슈얼의 관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적으로 추측하게 된다. 이는 니밋이 주인과 자신의 관계가 ‘신뢰’ 그 이상의 깊은 관계였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과 아랫사람으로서의 신뢰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전 독신입니다. 결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상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데서도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주인과 동성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니밋은 사회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남성성의 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쓰키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성성의 결여를 의식하는 것과 연동한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소설에 삽입된 이야기의 북극곰에 빗대어 고독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나에게 북극곰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북극곰이 얼마나 고독한 생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 년에 한번만 교미를 합니다. 일 년에 한번뿐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그들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한 마리의 수컷 북극곰과 한 마리의 암컷 북극곰이 우연히 만나 거기에서 교미가 이루어집니다. (중략) 그리고 남은 1년간을 깊은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일절 존재하지 않

습니다. 마음의 교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북극곰의 이야기입니다. (124-125)

니밋은 사쓰키에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비유로서 주인에게 들었던 북극곰의 이야기를 해준다. 이 이야기를 주인에게 처음 들었을 때 니밋이 “그럼 북극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하고 묻자 주인은 “그렇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라고 되묻는다.

곰을 인간의 비유로 볼 때 이는 사람들 모두 각자가 외롭게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만의 고독이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가리키는 ‘우리’를 대화 당사자인 주인과 니밋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극곰이 지닌 고독의 이유를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에 적용해 보면 부부나 가족 등을 만들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즉, 주인이나 니밋은 동성관계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맺는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지도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북극곰과 마찬가지로 주인과 니밋은 앞으로 남은 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야 하며, 앞서 니밋이 “전 독신입니다. 결혼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의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북극곰은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달리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 결과 고독한 일생을 보낸다 해도 북극곰이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과 니밋의 삶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들에게 부부관계나 가정을 강요하는 것은 북극곰에게 그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쓰키는 가정을 이룬 적이 있으나 아이의 부재로 그 가정이 해체되어 버렸으며 현재는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니밋과 다른 점은 현재의 고독이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아이와 가족, 그리고 행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여겨 이를 마음의 증오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당신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닥터. 총명하고 강하지요. (중략) 이제부터 당신은 느긋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만 많은 힘을 할애해버리면 잘 죽을 수 없게 됩니다. (중략)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등가인 것입니다, 닥터. (121)

앞서 기술하였듯이 사쓰키는 정신적 상처와 상실감으로 인해 자신의 노화와 죽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이미 받은 죽은” 상태라고

자인하는 니밋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물이다. 사쓰키는 갱년기에 접어든 중년여성이고 니밋은 60을 넘긴 사람이며, 또 다른 등장인물인 꿈의 예언가이자 마음의 치유사는 나이 많은 노파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타일랜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죽음에 보다 가까워진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니밋은 사쓰키의 증오와 상처를 꿰뚫어보고 그녀에게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 것을 충고하며 그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사쓰키는 갱년기 증상으로 괴로워하지 않으며 앞날을 미리 걱정하지도 않는다. 재즈음악을 떠올리며 잠이 들기를 기다리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결국 사쓰키는 니밋의 인도로 오랫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증오의 마음을 치유할 길을 찾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드라이브·마이·카」의 와타리 미사키는 가후쿠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아픈 비밀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녀의 외모는 큰 키에 “뚱뚱하지는 않지만 어깨는 넓고 다부진 몸집”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견지에서 보더라도 미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묘사되어 있다. “남자용 헤링본 자켓과 갈색 면바지를 입고, 검은색 컴퍼스 스니커즈를 신고 있는” 미사키는 화장을 하는 법도 없으며 옷차림 등에서도 여성스러운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미사키의 외모적 특징과 역할에 대해 도이 유타카(土居 豊)는 하루키의 특징적 인물 조형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미사키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色彩を持たない多崎つくると、彼の巡礼の年)』의 구로노 에리(黒埜 恵里)라는 인물을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구로와 마찬가지로 미사키도 다부진 체격에 남자 같은 인상으로 소박한 이미지의 여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건장한 여성은 거칠고 촌스러운 외모를 하고 있으나 주인공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여성이 주인공의 운명을 제시하는 듯한 전개는 『다자키 쓰쿠루』에도 드러나고 있는 특징”¹⁶⁾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건장하고 남성적 외모를 하고 있는 미사키는 말없이 가후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가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리고 시기

16) 土居 豊(2014) 「連作短編集『女のいない男たち』— 春樹自身によるもう一つの春樹ワールド」 『いま、村上春樹を読むこと』 関西学院大学出版会, p.118.

적절한 대답과 의견을 전하며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니미가와 더불어 미사키 역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로, 이러한 상처가 있기에 사쓰키와 가후쿠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로 봤을 때 미사키는 남성적인 외모와는 달리 가후쿠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모성적 이미지를 지닌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겠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여덟 살 때 집을 나간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거 때문에 어머니는 줄곧 나를 책망했어요.”

“어째서?”

“나는 외동딸이었어요. 내가 좀 더 귀엽고 예쁜 여자아이였다면 아버지는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태생적으로 못생겨서 버리고 가버렸다고.” (38)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사키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 남편의 가출을 못생긴 딸 때문이라고 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모친 밑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알코올중독이었던 미사키의 모친은 술만 들어가면 미사키가 못생겼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책망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여성으로서 깊은 상처를 입은 모친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사키의 외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상처를 딸에게 투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모친의 책망의 반동으로 미사키는 오히려 더욱 남성적인 외모와 태도로 자신을 무장해왔다 할 수 있다. 즉, 미사키의 모친이 자신의 상처받은 여성성에 구속된 나머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인물이라면, 미사키는 외모적으로는 여성적인 면을 포기하였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모성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그녀의 큰 가슴에 대한 묘사라 하겠다.

외모적으로 남성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미사키이나 이와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가슴만큼은 굉장히 크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는 미사키에게 가후쿠의 아내와 대치적인 역할과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즉, 가후쿠의 아내가 모성을 버리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연연한 인물이었다는 것과는 달리 미사키는 여성보다는 모성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인물이며 이를 외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 바로 큰 가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후쿠의 아내가 아이 낳기를 거부함으로써 ‘낳는 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자궁에 병을 얻었다는 사실과 대비를 이룬다. 즉, 미사키는 ‘기르는 성’으로서의 모성을 상징화하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사키는 외모나 성격, 하는 일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미지화되는 여성이라는 범주에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인물로 조형되어 있다. 이는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앞서의 니미이 사회 통념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별에서 벗어난 경계적 인물로 그려진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 간의 문제로 상처 받은 사람들의 조연자로서 역할을 하는 인물은 남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성향을 모두 갖고 있다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균형 잡힌 시선으로 조연자의 역할을 해내는 인물로 조형되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본고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타일랜드」와 「드라이브·마이·카」에 등장하는 인물의 조형적 특징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키 소설로서는 드물게 아이를 잃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타일랜드」의 사쓰키는 오래 전에 아이를 낙태한 일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죄책감과 증오를 쌓아오면서 모성과 여성성 사이에 왜곡된 사고를 지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갱년기에 접어들어 여성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지자 이를 여성성의 결여나 죽음의 문제로까지 여기게 된다.

한편 「드라이브·마이·카」의 가후쿠의 아내는 선천적 병으로 딸이 죽자 그 죄책감으로 아이를 갖는 데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된다. 이로 인해 스스로 모성을 포기한 채 대신 여성으로서의 삶에 구속된다. 남편과의 관계는 그녀를 모성이라는 책임에 구속시키나 사랑이 없는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는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두 여성은 모성을 상실함으로써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성에 집착하면서 모성과 여성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주인공들을 치유의 길로 이끌어 주는 인물들은 운전기사라는 직업뿐 아니라 사회적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인물로 조형되고 있다는 데 그 공통점이 있다. 니밧은 주인과 호모섹슈얼 관계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남성성의 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인물이며 미사키는 외모나 성격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이미지화되는 여성의 범주에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남녀의 문제로 상처 받은 사람들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은 이들에게 남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유미(2015)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UFO가 구시로에 내려오다(UFOが釧路に降りる)」론」 『日語日文学』 68, 大韓日語日文学会, p.242, p.245.
- 秋枝(青木)美保(2001) 「村上春樹 「UFOが釧路に降りる」 論一 「圧倒的な暴力の瀬尾際」 に立って」 『Studies in Japanese language culture』 4, 比治山大学日本語文化学会, p.10.
- 加藤典洋(2009) 「地震と父なるものの影一 『神の子どもたちはみな踊る』」 『村上春樹イエローページ 3』 幻冬舎, pp.235-239.
- 北村隆志(2014) 「話題作を読む 村上春樹 『女のいない男たち』 と夏目漱石」 『民主文学』 (589), 日本民主主義文学会, p.123.
- 久保田裕子(2012) 「言葉はく出来事>を越えることができるかー村上春樹 「タイランド」 論一」 『日本文学』 61(8), 日本文学協会, p.26.
- 都甲幸治(2014) 「妻の裏切り(特集 村上春樹が描く女と男 : 『女のいない男たち』 を読む)」 『文学界』 68(6), 文藝春秋, p.239, p.240.
- 土居 豊(2014) 「連作短編集 『女のいない男たち』 — 春樹自身によるもう一つの春樹ワールド」 『いま、村上春樹を読むこと』 関西学院大学出版会, p.118.
- 村上春樹(2014) 「まえがき」 『女のいない男たち』, 文藝春秋, p.7.

논문 투고 일자 : 2016. 09. 25.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계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要旨>

母性の喪失を経験した女性の造形について
- 村上春樹の「タイランド」と「ドライブ・マイ・カー」を中心に -

朴裕美

村上春樹の短編、「タイランド」と「ドライブ・マイ・カー」においての人物造形の特徴に焦点を合わせて分析を試みた。

これらの作品は類似したパターンで構成されており、春樹の小説としては珍しく子供を失った女性たちが登場している。「タイランド」のさつきは子供を中絶した経験によって長い間罪悪感と共にある男性に対しての憎悪に苦しんだ揚句、母性と女らしさに関して歪曲された思考を持つようになった。「ドライブ・マイ・カー」の家福の妻は、先天性の心臓病で娘をなくしてから自ら母性を放棄し、女性としての生活に拘るようになる。自分の意思であったかどうかにかかわらず母性の喪失を経験した女性たちは、自分のフェミニティーに執着し、母性と女性に関して歪んだ思考を持つようになるのである。

一方、主人公を癒しの道に導いてくれる人物は、社会的ジェンダー規範から外れ、男女の両方の傾向を同時に併せ持っている人物として造形されている。そのため、一方に偏らないバランスのとれた思考をもってアドバイザーとしての役割を担うことになる。

The Aspect of Woman with Experience of Maternal Loss
- Focused on 「Thailand」 and 「Drive・My・Car」 of Murakami Haruki -

Park, You-Mee

I analyzed the formative features of the characters in the Murakami Haruki short story 「Thailand」 and 「Drive・My・Car」.

Both stories are organized in a similar pattern and had women who lost their children, which is uncommon in Haruki's novels. Satsuki in 「Thailand」 has the distorted thinking between maternalism and femininity because of the experience of abortion in the past. In 「Drive・My・Car」, the death of Kafuku's daughter from a congenital disease made his wife constrain her life as a woman and give up herself as mother. Whether it was willful or against her will, women who had lost their maternalism started to have distorted thoughts of maternalism and femininity while they obsessed about their femininity.

The characters that lead the main characters in the way of healing are described as the characters who varied from the social norm and have both male and female tendencies. Therefore, they perform as the advisors role with their unbiased and balanced thought.